인천 유나이티드 선수단이 올 시즌 홈경기에서 승리한 뒤 서포터스와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시즌 개막 후 임금체불로 인한 소송 등 여러 고초를 겪었던 인천은 구단 쇄신안을 마련하고 새로운 도약을 다짐하고 있다. 사진제공 | 한국프로축구연맹

인천 쇄신안, 비전이 없잖아

사커 토픽

선수들 체불임금 올해 모두 지급
다양한 정책 불구 실효성은 의문
시 의존 위한 혁신추진단 우려도

올 시즌 개막 이후 임금체불 등 각종 고초를 겪었던 인천 유나이티드가 쇄신책을 발표하고 새 출발을 다짐했다. 인천은 5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구단 운영 쇄신안을 밝혔다. 올해 안에 체불된 임금을 해소하고, 구단의 부채도 갚아나가는 등 재정 안정을 도모해 팀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있도록 할 방침이다. 또 혁신추진단을 구성해 중장기 재정 로드맵을 마련해 과감하고 신속하게 팀을 정상화한다는 계획이다.

●체불임금은 올해 모두 지급

인천은 쇄신을 위해 체불임금 등 재정적 문제를 가감 없이 공개했다. 인천은 조만간 시로부터 46억원의 예산을 추가로 받는다. 올해 초 소송을 제기한 선수들의 체불된 수당을 연내로 모두 지급할 수 있게 됐다. 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선수들에게도 밀린 임금을 줄 수 있는 재원이 마련됐다. 또 일부 외국인 선수들에게 미지급된 연봉 등에 대해서도 연말까지 분할 지급하기로 합의했다. 인천 박영복 대표이사는 "올해 안으로 체불된 선수들의 임금 부분은 모두 해소가 가능하게 됐다.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또 일부 임원에게 불필요하게 지급됐던 월급은 환수 조치했고, 이른바 '카드깡'을 통해 공금을 유용했던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내부단속도 실시하고 있다.

●구단 정상 운영이 제1의 과제

박 대표이사는 "지금 구단에 가장 중요한 것은 정상적 운영이다. 그 다음은 팀이 강등권을 벗어나는 일이다. 이를 위해 모든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인천은 올해부터 2020년까지를 재정 안정화의 기반을 다지는 시기로 정했다. 지난달까지 구단 부채는 91억원이다. 향후 4년간 이를 '제로'로 만들기 위해 노력한다. 이를 위해 소수정예의 강소구단을 만들고, 조직체계를 슬림화하는 등 변화를 예고했다. 이어 2021년부터 재정 자립도를 확보하기 위한 방법을 강구할 방침이다. 구체적 방안 모색을 위해 시 관계 공무원, 시의원, 시 체육회와 축구협회, 스포츠마케팅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혁신추진단을 이달 내로 구성한다.

●구체적 청사진이 아쉬운 쇄신안

인천은 올해부터 유소년 시스템을 통해 안정적 선수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에 발맞춰 올해 38명이던 선수단 규모를 여름이적시장을 통해 30명 정도로 줄이기로 했다. 이럴 경우 R리그(2군리그)에 출전할 선수가 줄어드는 문제가 발생한다. 인천은 산하 유소년팀인 대건고 선수들을 R리그에 대거 활용하는 등 선수단 인건비를 줄이는 작업도 진행하고 있다.

다양한 쇄신책이 발표됐지만 실효성에는 의문점도 제기됐다. 구단의 재정 자립도와 안정적 운영을 이끌어내기 위한 실질적 대책은 다소 부족했다. 박 대표이사는 "이달 출범할 혁신추진단과의 논의를 통해 좀더 실질적 방안을 찾을 수 있을 전망이다"고 밝혔다. 그러나 혁신추진단이 단순히 시의 도움을 더 받기 위한 기구에 그칠 수도 있다는 우려까지 불식시키지는 못했다.

최용석 기자 gtyong@donga.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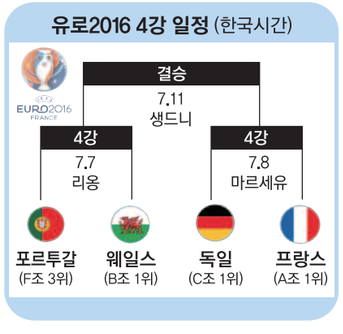
토마스 뮐러(독일) 제롬 보아텡(독일) 킹슬리 코망(프랑스) 헤나투 산체스(포르투갈)

4강 팀에만 8명…유로2016 '바이에른의 잔치'

▌통신원 수첩

전 세계 축구팬들을 열광케 만든 2016유럽축구선수권대회(유로2016)도 이제 피날레까지 얼마 남지 않았다. 당연한 소리겠지만, 유로 또는 월드컵 같은 국가대항전에선 아무리 축구가 세계화되었을지라도 자국리그 소속 선수들이 국가대표팀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독일 분데스리가 최강 바이에른 뮌헨 소속 선수들은 독일뿐 아니라 토너먼트에서 생존한 다른 나라 대표팀에서도 활약하고 있어 눈길을 끈다.

이미 준결승에 진출한 4개국이 결정됐고, 그 중 강력한 우승 후보로 꼽히는 독일대표팀에는 8강전에서 이탈리아의 잔루이지 부폰(유벤투스)과 세기의 골키퍼 대결을 펼친 마누엘 노이어를 비롯해 토마스 뮐러, 마리오 괴체, 제롬 보아텡, 요슈아 키미히, 그리고 2016~2017시즌부터 바이에른 뮌헨 유니폼을 입을 마츠 훔멜스까지 총 6명의 바이에른 뮌헨 선수가 포진해 있다. 2014브라질월드컵 때도 바이에른 뮌헨 선수들이 대거 뽑혔을 정도로 '전차군단'에서 이들이 차지하는 비중은 상당하다. 독일 현지에서도 바이에른 뮌헨 선수들이 많아서 팀워크나 분위기에는 긍정적일 수 있지만, 너무 한 팀으로 치우친 모습은 부정적일 수도 있다는 시각이 공존한다.



4강 진출국들 중 프랑스(킹슬리 코망)와 포르투갈(헤나투 산체스)에도 바이에른 뮌헨 선수가 1명씩 있다. 코망은 2015~2016시즌 더글라스 코스타와 함께 새로운 코코(Co-Co) 듀오를 형성해 아르연 로벤과 프랭크 리베리의 뒤를 이을 신동력으로 각광받았으며, 유로2016에서도 5경기 모두에 출장해 인상적 활약상을 보여줬다. 산체스는 2016~2017시즌부터 바이에른 뮌헨에 합류할 유망주로, 아직 19세밖에 되지 않은 신인이다. 그러나 폴란드와의 8강전에서 1-1 동점골을 성공시키며 포르투갈을 패배의 수렁에서 건졌다.

이처럼 바이에른 뮌헨은 유로2016 4강 진출국의 대표선수로 무려 8명을 배출하며 명문 클럽의 위상을 재확인했다. 바이에른 뮌헨 다음으로는 코리안 프리미어리거 이청용(28)이 몸담고 있는 크리스털 팰리스가 모두 5명(프랑스 2명·웨일스 3명)으로 2위에 올랐다. 레알 마드리드(스페인), 아스널(잉글랜드), 스포르팅 리스본(포르투갈)이 4명씩으로 그 뒤를 이었다.

개막 이전부터 테러 위협 때문에 우려가 컸으나, 웨일스와 아이슬란드의 돌풍을 포함한 여러 이변으로 화제를 낳아온 유로2016이다. 이제 대망의 우승을 향해 4개국이 생존했고, 결승에 오를 두 나라는 7일(한국시간) 포르투갈-웨일스전, 8일 프랑스-독일전을 통해 가려진다.

뮐른(독일) | 윤영신 통신원

첼시 리 영구제명…KEB하나, 지난시즌 성적 무효

WKBL, 해외동포선수제도 폐지

준우승 상금 총 4500만원 환수
에이전트 2명 무기한 활동 정지
장승철구단주·박종천 감독 사퇴

한국여자농구연맹(WKBL)이 공문서 위조 혐의가 드러난 첼시 리(27·사진)와 소속팀 KEB하나은행에 대한 징계를 확정했다. 첼시 리의 2015~2016시즌 기록과 시상내역을 모두 삭제했고, KEB하나은행의 시즌 성적도 무효화했다. KEB하나은행도 첼시 리 영입에 관여한 인사들을 자체 징계했다.

WKBL은 5일 서울 강서구 WKBL 회의실에서 임시이사회를 열고 첼시 리 사건과 관련된 징계를 확정했다. 첼시 리를 영구제명하기로 했고, 그녀의 에이전트 2명에 대해서도 무기한 활동정지 처분을 내렸다. 지난 시즌 정규리그 2위와 챔피언 결정전 준우승을 차지한 KEB하나은행의 성적도 말소했다. 준우승 시상금 총 4500만원(플레이오프 3000만원·정규리그 1500만원)도 환수하기로 했다. 또 다음 시즌 외국인선수와 국내선수 드래프트에서 각 라운드 최하위인 6순위, 12순위를 부여하기로 했다.

KEB하나은행은 이사회 직후 자체 징계안을 발표했다. 장승철 구단주와 박종천 감독이 사퇴한다. 한종훈 사무국장은 감봉 조치를 받았다. KEB하나은행은 또 첼시 리와 에이전트에 대해선 손해배상을 포함한 법적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KEB하나은행 조성남 단장은 "물의를 일으켜 정말 죄송하다. 진심으로 사과드린다. 법원의 최종 판결이 나오지 않았지만 도의적 책임을 지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WKBL은 해외동포선수제도를 폐지하기로 했다. WKBL은 저변이 열악한 국내여자농구의 현실을 고려해 부모 또는 조부모가 한국국적자인 외국인선수가 국내선수 신분으로 리그에서 뛸 수 있도록 하는 해외동포선수 규정을 운용해왔다. 첼시 리 사건은 이 규정의 허점을 노려 서류를 조작해 벌어진 일이다. 앞으로는 해외동포선수는 한국국적을 취득한 이후 국내선수 드래프트에 포함시켜 선발하기로 했다.

WKBL은 자체 징계도 논의 중이다. WKBL 관계자는 "이사회에서 연맹 자체 징계에 대한 이야기도 나왔다. 재정위원회를 개최해 논의해보고, 필요하다면 다음 이사회까지 거쳐 연맹 인사들에 대한 징계도 확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최용석 기자 gtyong@donga.com

JDX와 함께 하는 김도훈의 골프 솔루션 15 팔로스루를 확인하라

일관된 웨지샷, 손목 사용 최대한 줄여라

1 2 좀더 일관된 웨지샷을 원한다면 임팩트 이후 클럽 헤드는 타깃 방향을 따라 진행하고, 클럽 페이스는 하늘을 향하면서 자연스럽게 몸 안쪽에서 회전되도록 해야 한다. 3. 웨지샷에서 과도한 손목의 사용은 정확성을 떨어뜨린다. 임팩트 이후 클럽 헤드가 몸의 뒤쪽으로 이동되고 있다는 것은 손목을 많이 사용하고 있다는 증거다.

그린 주변에서의 웨지샷은 성공했을 때 높은 쾌감을 주지만, 실패했을 때는 실망감에 전의를 상실하게 만들다. 대부분은 퍼트까지 영향이 전달돼 좋은 스코어로 홀을 떠나지 못하게 된다.

그린 주변에서의 웨지샷은 생각보다 어렵지 않다. 큰 스윙을 해야 할 필요가 없는 만큼 배우기도 쉽다. 그러나 많은 아마추어 골퍼들은 지나치게 쉽게 생각해 배우려고 하지 않는다. 문제가 있을 때는 그저 '한번 쯤 나오는 실수'라고 생각하고 자신의 실력을 믿는다. 하지만 실제로 아마추어 골퍼들은 웨지샷 기술이 부족하다. 어떻게 해야 더 정확하고 정교한 웨지샷을 할 수 있는지 살펴보자.

어드레스와 백스윙 모두 중요하다. 한 가지 추가하면 팔로스루다. 즉, 손목의 사용이다. 스윙이 진행되는 동안 최대한 손목의 사용을 억제하면서 스윙의 크기와 상체 회전을 이용하면 훨씬 더 안전하고 효과적인 웨지샷을 할 수 있다.

스탠스는 단단하게 고정한 상태에서 안정된 자세로 어드레스를 하고 백스윙 때 손목이 아닌 상체 회전으로 진행해야 한다는 공식 같은 이론은 앞서 진행된 레슨을 통해 여러 차례 설명했다. 그 다음 후속되어야 할 동작이 팔로스루에서 손목의 움직임이다.

웨지샷에서 방향성이 좋지 못해 공이 홀 근처에 멈추지 않는 가장 큰 이유가 바로 과도한 손목의 사용에 있다. 손목을 많이 사용하고 있는지 아닌지 확인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은 클럽 헤드가 가리키는 방향이다. 임팩트 이후 클럽의 헤드가 몸 뒤쪽으로 이동되고 있다면 지나치게 손목을 많이 쓰고 있다는 증거다. 한두 번쯤 잘 맞을 수도 있지만, 일관된 웨지샷을 하기엔 나쁜 습관이다.

좀더 일관된 웨지샷을 만들고 싶다면 손목의 사용을 줄여야 한다. 임팩트 이후 클럽 헤드는 타깃 방향을 따라 이동되는 것이 좋다. 한 가지 더 확인할 점은 클럽 페이스가 가리키는 방향이다. 페이스 면은 하늘을 향하고 있어야 하고 그 상태에서 클럽 헤드가 움직이는 방향에 따라 자연스럽게 몸이 따라 움직이는 것이 좋다. 이렇게 해야 공을 원하는 방향으로 보낼 수 있고, 적당한 스핀이 걸려 그린에 떨어진 뒤 빠르게 멈추게 된다.

도움말 | 프로골퍼 김도훈
정리 | 주영로 기자 na1872@donga.com

수원삼성, 수원더비 홈경기 응원가 발표

프로축구 수원삼성은 10일 수원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릴 수원FC와의 첫 홈 맞대결을 앞두고 스페셜 응원가와 엠블럼을 5일 발표했다. 응원가 '위 빌트 디스 시티 온 풋볼(We built this city on football)'은 미국의 록밴드 스타십이 1985년 발표한 'We built this city'를 개사한 곡으로, 개사와 녹음은 수원 팬인 세라밴드 김진영 씨가 담당했다. 우리나라의 첫 지역더비에 대한 자긍심을 디자인으로 형상화한 엠블럼은 스포츠 디자인 전문회사 스미스스포츠(www.facebook.com/smithsports.kr)가 제작했다.

케빈 듀란트, 골든스테이트로 이적

올해 미국프로농구(NBA) 자유계약선수(FA) 최대어로 평가받는 포워드 케빈 듀란트(28)가 골든스테이트로 이적하면서 지난 시즌 만장일치 최우수선수(MVP) 스티븐 커리(28)와 한솥밥을 먹게 됐다. ESPN을 비롯한 미국 매체들은 5일(한국시간) FA 자격을 얻은 오클라호마시티의 듀란트가 커리의 골든스테이트와 2년 계약을 했다고 일제히 보도했다. 2년간 총액은 최대 5430만달러(약 623억원)다. 듀란트의 이적으로 골든스테이트는 커리와 함께 역대급 '원투펀치'를 구성했다.

편집 | 좌혜경 기자 hk7048@donga.com